

이 윤 희 · 예술위원회 국제교류팀

## Art Issues

홍콩의 세계 최대 규모의 문화센터  
건립 주춤

February 22, The New York Times

홍콩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재정기간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사업 참여를 거절하자 세계에서 가장 큰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은 링컨센터의 몇 배 규모인 이 문화센터 운영권을 위해 경쟁 중이었던 파리의 퐁파두센터, 구겐하임재단, 뉴욕현대미술관 모마에게 있어서는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운영권을 위해 퐁파두센터는 2004년 10월 프랑스 자크 사카 대통령의 홍콩 방문을 설득한 바 있으며, 구겐하임 재단 이사인 토마스 크렌스는 '규모와 위치상 세계에서 가장 흥미 있는 기회'라고 공개적인 제안을 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외국 문화 기관의 역할이 너무 크다는 국내 예술가들의 이의제기와 함께 초기 계획이 개발업자에게만 너무 관대하다는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1년 넘게 논란에 빠져있었다. 이러한 반대 여론으로 작년에 정부가 개발업자들에게 단순히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 외에도 30년 동안 문화활동 및 센터 운영비를 충당하는 기금을 만들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런 조건은 개발업자들이 센터 건립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는 결과를 낳았다. 고위층인 라파엘 휴이(Rafael Hui)는 홍콩의 가장 유명한 향구인 서쿠우룽(West Kowloon)에 문화 단지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새 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여행하는 동안 다시 집을 꾸러 말을 타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중국의 격언을 인용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그의 새 위원회가 9월에 건립 방안을 다시 보고할 것이다'고 전했다.

## Music

피츠버그의 두 오페라 단체가 시도하는  
협력관계

March 1, The Pittsburgh Post-gazette

피츠버그오페라(The Pittsburgh Opera)와 피츠버그오페라극단(Opera Theater of Pittsburgh)은 2006, 2007년 시즌에 예술활동과 마케팅에 있어 공동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협력은 합병이 아니며 과거에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노력의 결과이다. '이번 협력 건은 합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피츠버그 지역의 오페라에 대해서 두 단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피츠버그오페라 집행 감독인 마크 웨인 스테인은 말했다. 두 단체의 합병설은 피츠버그오

페라가 자체 제작할 「마술 플루트(The Magic Flute)」의 연출을 피츠버그오페라극단 대표가 맡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 이번 달 초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재정적인 압박이 심한 두 오페라단체가 이사회 의결로 합병이 된 적이 있다. 피츠버그의 오페라 단체들의 협력에는 피츠버그오페라극단의 이사회 의장이자 피츠버그 오페라 이사회 멤버인 조지 화이트의 기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피츠버그오페라단은 피츠버그오페라극단의 변형된 작품인 바그너의 「반지(Ring)」 여름 순회공연 홍보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 새로운 협력관계"는 우리 두 단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관객 증가, 오페라가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마크 웨인 스테인이 덧붙였다.

## Art Issues

## 에든버러페스티벌의 새로운 예술 감독

February 28, The Guardian

놀랍게도 호주 작곡가가 영국 에든버러페스티벌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조나선 밀스(Jonathan Mills)는 한 번의 행사 때마다 100만 파운드(18억 원)의 부채가 생기며, 총 부채는 750만 파운드(135억 원)에 이르는 이벤트를 맡게 되었다. 그는 부채에 대해 2000, 2001년 멜버른페스티벌의 예술감독으로 재임하면서 적자가 아닌 흑자상태였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다. "나는 유럽 사람들과 같은 문화가 아니다. 우리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재정에 대해 좀 더 신중한 편이다"고 그는 말했다. 42세의 밀스의 첫번째 페스티벌은 2007년이 될 것이다.

황 진 수 · 예술위원회 예술교류팀

## Dance

## 소규모를 지향하는 마크 모리스

March 5, The New York Times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크 모리스 무용단이 올해 창단 25주년을 기념한다. 그러나 장작 모리스는 점점 춤 공연을 줄여가고 있다. 그는 "최근 나는 거의 춤추지 않는다. 그리고 순회공연 시에도 더 이상 실연을 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내가 은퇴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은 확실하다. 내 건물에서 계획하는 행사에서 나는 여전히 춤을 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Art Issues

## 영국, 예술가 비자 변경 안 재검토

March 2, The Stage

영국 정부는 영국 내에서 공연하는 외국인 예술가들에 대한 새로운 비자발급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재검토하는 데 동의했다. "재검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케스트라 또는 순회공연단과 같은 예술단체들이 더 이상 단체로 영국에 비자신청 할 수 없게 되거나, 자국에 있는 영국 영사관에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발생시키게 하는 등, 새로운 비자발급 과정에서 야기될 과도한 추가 비용과 관료적 절차상의 곤란함에 우려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비자발급 거절에 전 순회공연 일정의 차질을 빚게 되는 불상사를 걱정해왔다."

## Art Issues

## 뉴욕시의 문화예술 지원예산 삭감 전망

미국 뉴욕시의 정책 소식지인 「Gotham Gazette」의 3월 6일자 기사에 따르면 뉴욕 시 행정부에서 금년 보다 3천7백만 달러가 삭감된 약 1억2백만 달러의 2007년 문화예술 지원예산안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독립 예산국(Independent Budget Office)에 따르면 이는 20년 만의 최대규모의 삭감이라고 하여 뉴욕 시 예술계 내에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 시는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많은 문화예술 활동이 연중 펼쳐지기 때문에 전세계 문화애호가들의 주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뉴욕 시장국에서도 뉴욕의 문화적 매력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삭감으로 뉴욕 시 소재의 건물에 주재한 문화협업체(the Cultural Institutions Group or CIGs)는 지원의 규모가 1989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특히 시 당국의 문화예술 지원규모 변동 폭이 적지 않음에 의해 문화협업체와 뉴욕 시장국과의 특별한 파트너십 관계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번 문화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많은 뉴욕 내 예술단체들이 뉴욕 시가 내세우고 있는 소위 '문화예술가치의 비종과 문화예산의 현실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있다고 이 소식지는 전하고 있다.